

<출장복명서>

- 영천시·경산시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-

1. 일시: 2011년 4월 27일 수요일 오후 1시

2. 장소: 영천시 그린환경센터

3. 참석자

- KDI 연구진 및 외부연구진
 - 정민웅 전문위원, 윤인경 전문연구원, 경화엔지니어링 황인서 상무 외 2인, 대진대학교 신영철 교수
- 포천시 관계자
 - 영천시 클린환경팀 김종열 팀장 외 2인

4. 회의내용

- 신규 축분혼합 바이오가스 처리시설의 필요성
 - 해양투기가 전면금지됨에 따라 유기성폐기물의 육상처리방안이 심각
 -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권역화 최적화방안에 따라 영천경산시와 광역화 사업으로 건설운영비를 절감하고자함
- 본사업의 건설로 인한 주변파급효과 등
 -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
- 타 사례와 비교하여 비싼 처리비용에 대한 입장
 - 세부적인 검토를 하지 못한 상황임
- 사업자의 정부지원요청사항에 대한 영천시 입장
 - 세부적인 검토를 하지 못한 상황임

○ 구제역발생현황

- 약 40,000두를 살처분 하였으나 설문조사 위탁농가가 아님.
- 또한 돼지는 사육기간이 짧아 수요농가가 증가할 예정

5. 현장조사 결과

○ 현장사진



<그림 1> 영천시 가축 공공처리시설



<그림 2> 사업 예정 부지

○ 현장조사내용

- 사업부지는 환경집적단지내 위치하며 하수처리장(공사중)과 축산공공처리시설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민원에 대한 염려

가 적어 입지여건은 좋은 것으로 평가됨

- 사업부지의 91%는 사유지로서 답이 약 64%에 해당되며 집적단지중앙에 위치하여 토지보상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.
- 가축분뇨처리 100톤/일 규모의 공공처리시설이 운영 중이며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톤당 14,000원의 사용료 징수